

건축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어떻게 실현될까

건축의 무방

이건섭 지음

“도시계획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저서로, 거리의 생명력에 대해 문학작품 이라고도 할 만큼 탁월히 묘사한 이 책은 기존의 계획 이론을 신랄하게 비판해 이 책의 관점을 오래전부터 이해했던 이들에게 통쾌함마저 안겨준다.”

‘뉴욕타임스’가 출간 30주년을 맞은 한국의 책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신문기자 출신인 제인 제이콥스(1916~2006)가 지난 1961년 쓴 598 페이지 분량의 ‘미국 대도시의 부흥과 쇠퇴’이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정다운 이웃에 둘러싸인 활기 넘치는 거리’와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도시’의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이듬해 뉴욕시가 오래된 집들을 허물고 그 위로 지나는 고속도로를 계획하자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지 검증이 안 되는 도로는 필요 없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건섭 삼우설계 상근고문(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이 펴낸 ‘건축의 무방’은 건축과 디자인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한 ‘건축 책’과 저자인 건축가를 통해서 19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근·현대 도시와 건축의 흐름을 살핀다. 책으로 본 20(·21)세기 건축의 모험 리마스터링 에디션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은 수류산방의 첫 책 ‘20세기 건축의 모험’(2005년)을 20여 년만에 복각해 ‘아주까리 수류산방’의 7번째로 펴낸 것이다. 오래된 영화나 음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리마스터링 작업처럼 이 책 또한 책으로 변한 리마스터링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편집 디자인 실험과 시도를 했다.



최연소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인 서아프리카 디에베도 프랑시스 케레가 2001년 흙벽돌 등 지역에서 난 재료로 지은 ‘간도(Gando) 초등학교’. <위키미디어 커먼스 제공>

저자는 초판 서문에서 “건축디자인이 밝아 온 과정을 이해하지 않은 채 그 껍질만 도입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나는 이 책에서 다루는 저자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서로 다른 이중시점(Dual viewpoint)을 적용해, 나름의 판단과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고 밝힌다. 신간은 크게 ▲제1장 디자인의 자아탐구 ▲제2장 근대 디자인의 발생과 변천 ▲제3장 탈근대주의의 형성 ▲제4장 도시와 인간 ▲제5장 지속가능한 건축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5장은 ‘공생의 철학’에서 ‘지속가능한 건축’으로 제목을 바꾸고,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21세기 흐름을 반영한 3편의 글을 새로 실었다.

저자는 건축학도 시절부터 수 십년 동안 건축과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 읽었던 필독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23편의 글을 통해 소개되는 건축 책들은 건축·도시계획사의 고전이다. 저자는 르 코르뷔지에(새로운 건축을 향하여)를 비롯해 아인 랜드(파우넨 해

드), 램 콜라스(S.M.L, XL), 톰 울프(바우하우스에서 오늘의 건축으로), 케빈 린치(도시의 이미지), 비아르케 잉엘스(YES IS MORE) 등의 저서를 통해 저자들의 건축·도시계획 담론과 정신을 쉬우면서도 흥미롭게 들려준다. 버크민스터 풀러(우주선지구호 사용법)와 이안 맥하그(자연과 함께 하는 디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데이비드 커틀러(도시의 생존)의 저작은 현재 당연한 기

후변화 등 21세기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극빈국인 서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 출신의 디에베도 프랑시스 케레의 삶과 건축은 ‘과연 진정한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물음표를 던진다. 건축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그는 고향 마을 진흙을 활용한 벽돌과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3개 교실을 갖춘 초등학교를 지었다. 그는 2022년 ‘프리츠커 건축상’을 최종 소로 수상한 후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 사람들을 꿈꾸게 하고 그들이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저자와 함께 근·현대 건축사 속으로 떠난 지적탐험의 여정을 마친 독자들은 고층과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선호하고, 인구 1000만명의 ‘메가 시티’를 구축하려는 한국 도시계획의 현주소와 건축의 미래를 새삼 돌아보게 될 것이다.

<수류산방>·3만3000원 /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프랑스 현대 시 155편 깊이 읽기=보들레르부터 이브 분푸아까지, 20세기 프랑스의 시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 시 원문과 한역본, 해설을 함께 수록해 원어의 아름다움과 한국어 버전의 미학 등을 고루 느낄 수 있다. 보들레르의 역작 ‘알바트로스’, 아르튀르 랭보의 작품 등이 실려 있다. 카시스 강과 랭보에 얽힌 비화 등 문화예술적 배경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해석은 읽는 재미를 더한다. <문학고지성사>·3만 원

▲그린의 정신=‘그린’은 ‘자연 그 자체’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충돌에 맞서는 운동’ 두 가지를 의미한다. 생명력을 지닌 언어 ‘그린’은 개인의 행동, 기업, 정치활동, 법률 등 사회 전반에 참신한 접근법이 된다.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경제적 충돌을 다룬 ‘스필 오버 비용’에 대해 ‘그린의 정신’이라는 개념을 접목한다. 시대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이에 응전할 때, 기후변화 등을 직시하는 그린의 정신이 필수적임을 역설한다. <에코리브르>·2만8000원

▲블랙케이크=오프라 윈프리가 동명의 드라마로도 제작하며 화제가 된 장면 소설. 커피와 버니, 카리브해의 한 섬에서 놀 불어살던 둘은 야생의 바다에서 함께 수영하며 성장한다. 무엇이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년시절과 달리 여자로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에 좌절한다. 두 사람은



성 정체성, 인종 정체성 등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틀’로 꾸조인 시험받지만, 한계에 봉착할 때마다 공감과 용기로 극복해 나간다. <열린책들>·1만8800원

▲일의 천재들=일을 하면서 대부분은 직급을 떠나 즐거움보다 좌절을 많이 겪을 것이다. 번아웃, 무기력, 저성과 등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을 알려준다. 리더는 구성원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조직원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모든 조직원은 몰입과 성장으로 단순히 ‘밥벌이’를 떠나, 자아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의 천재성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경제신문>·1만8000원

지브리 음악감독과 뇌과학자의 감각적인 대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

히사이시 조·요로 다케시 지음, 이정미 옮김

히사이시 조의 이름은 몰라도 그의 음악은 우리 귀에 친숙하다.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삽입됐던 ‘인생의 회전목마’를 비롯해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히야오 감독이 만든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의 작품엔 모두 그의 음악이 흐른다. 작곡 뿐 아니라 연주자이자 지휘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책 ‘히사이시 조의 음악일기’를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풀어놓기도 했다.

‘지브리 음악감독과 뇌과학자의 이토록 감각적인 대화’라는 부제가 붙은 책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는 히사이시 조와 뇌과학자이자 해부학자인 요로 다



케시의 라디오 대담을 풀어쓴 책이다. 도쿄대학 의학부 교수를 역임한 요로 다케시는 사회 비평 등 다양한 분야에 정통한 일본의 대표적 지성이자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그의 저서 ‘바보의 벽’은 일본과 한국에서 100만부 넘게 팔렸다.

책은 ‘음악에 감동하는 인간’, ‘감수성이 움트는 감각의 토양’, ‘좋은 음악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의식과 말’, ‘공감과 창조’,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 등 6개의 장으로 나눠 이야기를 풀어낸다.

‘인간은 왜 음악을 만들고 예술과 감각은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큰 주제 안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대화는 음악에서 출발해 과학, 철학, 사회학, 인문학, 곤충의 생태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대화는 인간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음악을 듣는지, 좋은 음악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감각이 필요한지 등으로 이어진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전문 분야를 적극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하며 대화를 이어나간다. 히사이시 뇌과학과

곤충연구를 중심으로 한 해부학, 사회·문화적 비평에 있어 요로 교수의 견해를 존중하고, 요로 교수는 히사이시의 음악이론과 작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경청한다.

‘머리에 커다란 도서관이 얹혀있는 듯한’ 요로 교수와의 대화에 대해 히사이시는 “세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비밀을 풀어내는 듯한 스펀지와 서스펜스를 느꼈다. 그 어떤 영화보다 재미있어서 그저 감동과 설렘을 느끼며 빠져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좋은 음악이 무엇이나 히사이시의 질문에 “오래 들을 수 있는 것, 시간이 지나도 빛바래지 않는 것”이라고 답한 요로 다케시는 “히사이시 씨의 조리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좋은 음악을 듣는 기분이다. 그와 대화하며 음악과 언어가 깊은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한다. 특히 대중성과 예술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미야자키 히야오와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교하며 논지를 펼친 히사이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익출판>·2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도깨비폰을 해지하시겠습니까?=우연히 도깨비들의 세상에 발을 들인 ‘수범’은 도깨비들의 제안에 넘어가 가수가 된다. 스타가 되고 최신행 도깨비 폰도 갖게 되면서 수범은 교우관계, 학교생활 등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수범은 모든 것이 도깨비 폰 덕분이라 생각해, 현실세계에 점점 관심을 끄게 된다. 과학기술의 양면성,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학고지성사>·3만 원

▲파라는 망고나무를 사랑해=망고를 좋아하는 소녀 파라, 여름마다 할아버지네 마당에 가서 수많은 망고들을 수확한다. 그러던 어느 여름 망고열매가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 마당을 보면서 파라는 놀란다. 할아버지는 묵묵부답, 파라는 망고열매가 맺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나무가 품은 세계와 교감하면서, 진정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배운다. <차리북>·1만5000원

▲정의를 향한 한걸음 한걸음=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그래픽 노블로 오마주했다. 총 4권으로 기획된 시리즈는 독재자 ‘실비오’에 맞서는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방갈로르는 마르케르트 꽃으로 비폭력 저항운동을 내걸고 자신의 자유 의지를 표출한다. 대통령 실비오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동물들이 추위에 떨게 만든다. <산하>·1만8000원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